

삼성 KPMG

# ISSUE MONITOR

제99호

January 2019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분석기간: 2013~2017년



#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김기범**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430

kkim28@kr.kpmg.com



# Contents

	Page
<b>Executive Summary</b> .....	<b>3</b>
<b>연구의 목적 및 범위</b> .....	<b>4</b>
산업 재무분석의 필요성 .....	4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	4
<b>연구방법론</b> .....	<b>5</b>
분석 단계별 활용 지표 .....	5
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	8
6가지 수치를 보여주는 박스플롯(Box Plot) 활용 .....	8
<b>통신서비스 산업 재무분석</b> .....	<b>9</b>
통신서비스 산업의 총자산과 자기자본 .....	9
통신서비스 산업의 부채와 유동성 .....	10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 .....	11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12
통신서비스 산업의 영업이익 .....	13
통신서비스 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	14
통신서비스 산업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	15
통신서비스 산업의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 .....	16
통신서비스 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	17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순이익과 ROI .....	18
통신서비스 산업의 ROE와 유보액 .....	19
<b>통신 3사 재무분석</b> .....	<b>20</b>
통신 3사의 미래 성장잠재력 .....	20
통신 3사의 매출 .....	22
통신 3사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23
통신 3사의 영업이익.....	24
통신 3사의 판매비와 관리비 .....	25
통신 3사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	26
통신 3사의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 .....	27
통신 3사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	28
통신 3사의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	29
<b>결론 및 시사점</b> .....	<b>31</b>
Appendix – 통신 산업 분석 대상 기업 .....	34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Executive Summary

산업의 재무분석은 해당 산업에 속한 개별기업은 물론 정책입안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해당 산업의 성장성과 재무적 안정성, 손익계산서 흐름에 따른 단계별 수익성 및 비용 효율성, 신규투자여력의 변동 등을 분석한다. 특히 통신서비스 산업 전체 기업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통신 3사의 재무비율 분석도 수행하여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본 자료를 활용할 때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 Executive Summary

### ■ 산업 재무분석의 활용

- 개별기업: 동종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 내 수익·비용 항목들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의 현재 재무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정책입안자: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정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주기를 가늠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
- 투자자: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 분석 대상 및 연구방법

- 분석 대상: 2018년 12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 재무정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하위 중분류인 '통신업'에 해당하는 56개 기업
-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구조 관계 비율과 회계적 수익·비용 흐름에 따른 20개의 평균 재무비율 도출
- 통신서비스 산업 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재무비율 추이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비교도 진행
- 평균의 함정으로 인한 왜곡된 분석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위 20%(상위 10%, 하위 10%)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 Trimean을 사용

### ■ 통신 산업 분석결과

-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이익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대를 유지하며 답보 상태를 보임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통신서비스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은 분석기간 동안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기자본비율은 2014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 통신서비스 업계는 시장과 기술의 환경 변화 속에서 정책 변화 및 소비자 변화, 경쟁 구도 변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통신 산업의 재무비율을 통해 향후 성장 방향성과 재무적 성과를 예측하며 이를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반영해야 함

###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산업 재무분석의 필요성

“ 개별기업, 정책입안자, 투자자의 합리적인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정보 제공 ”

산업의 재무분석은 개별기업과, 정책입안자 및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개별기업은 자사가 속한 동종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 내 수익, 비용 항목들의 재무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의 현재 재무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의 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신규투자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미래 경영 성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의 재무적 성과가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 사이클에 기인한 것인지, 자사의 개별적 경영 성과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고 사업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의 경우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정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주기를 가늠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산업 평균 재무비율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투자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의 2013~2017년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해당 산업의 대분류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통신장비와 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통신과 관련하여 서비스 업종에 속한 기업에 한정했다. 세세분류로는 무선 통신업, 유선 통신업, 위성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기타 전기통신업,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서비스 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통신 3사로 불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비교 분석도 진행하여 보고서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 2013 ~ 2017년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의 평균 재무비율 변동을 분석 ”

분석자료로 NICE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개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2018년 12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하위 중분류인 '통신업'에 해당하는 56개의 기업의 재무비율을 추출했다. 각 재무비율 별로 해당 관측치의 상위 10%, 하위 10%에 해당하는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 후 평균값을 통해 통신서비스 관련 전체 기업들의 평균 재무비율 분석을 수행했다. 더불어 중앙값을 포함한 상하위 25% 그리고 최하값, 최상값을 박스그래프인 '박스플롯(Box Plot)'으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했다.

“ 통신 서비스 산업에 속한 외부감사 대상 56개 기업의 재무정보를 추출 ”

### 통신 산업 세세분류별 분석 대상

구분	의감대상기업수			
	KOSPI	KOSDAQ	비상장사 · KONEX	전체
무선 통신업	2개	1개	4개	7개
유선 통신업	1개	1개	11개	13개
위성 통신업	0개	0개	1개	1개
통신 재판매업	1개	1개	15개	17개
기타 전기통신업	0개	0개	1개	1개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0개	5개	12개	17개
<b>통신업 전체</b>	<b>4개</b>	<b>8개</b>	<b>44개</b>	<b>56개</b>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조사 시점 차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발간한 삼성KPMG 경제연구원의 「Industry Financial Analysis: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과 분석 대상 기업 및 분석 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II. 연구 방법론

### 분석 단계별 활용 지표

재무비율을 분석하면 수익과 비용발생의 각 단계별로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적 트렌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활용한다. 총자산증가율과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의 변동을 통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유동비율을 통해 단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구조 관계 비율을 통해 산업의 성장잠재력 분석 ”

### 재무구조 관련 비율

활용 재무비율	산출식
총자산증가율	$\frac{(\text{당기총자산} - \text{전기총자산})}{\text{전기총자산}}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text{자기자본} / \text{총자산}) \times 100$
부채비율	$(\text{부채총액} / \text{자기자본}) \times 100$
유동비율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도출과정의 4단계 분석을 통해 각 단계별 수익·비용발생의 재무적 트렌드 파악”

한편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도출의 4단계 과정을 거친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익이며,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이다. 다만, 제조업과는 다르게 서비스 업종에서는 매출총이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는 통신서비스 기업들의 경우, 매출총이익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매출총이익을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합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이익이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한 최종 이익이다. 중단사업손익은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먼저 1단계(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매출액증가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이다.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산업의 단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 파악한다. 아울러 매출과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회전율을 파악하여 산업 내 자금회전의 활동성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단계(매출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 대비 판매비·일반관리비·인건비·연구개발비이다. 영업이익증가율을 통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을 파악하고, 영업이익률을 통해 본 단계의 수익성을 분석한다. 3단계(영업이익+영업외이익-영업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이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을 통해 본 단계의 수익성을 파악하며,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변동성을 분석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세부항목은 매우 다양하고, 기업마다 사용하는 계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영업외비용의 주요 항목인 이자비용의 경우 기업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을 통해 활용하도록 한다. 만약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4단계(법인세차감전이익-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ROI),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이다. 매출액순이익률 변동을 통해 산업 내 경영활동의 최종성과를 파악하고, 투자된 자본 대비 최종 수익성 변동을 함께 분석해 본다. 또한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을 통해 산업 내 기업들의 신규투자여력의 변동을 살펴 보도록 한다.

회계적 수익·비용 흐름에 따른 단계별 활용 재무비율

단계	활용 재무비율	산출식
<b>[1단계]</b>	매출액증가율	$\frac{(\text{당기총매출액} - \text{전기총매출액})}{\text{전기총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
		매입채무회전율 (총매출원가/매입채무)
<b>[2단계]</b>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 100
	매출액 대비 판매비	(판매비/매출액) × 100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매출액) × 100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인건비 (인건비/매출액) × 10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b>[3단계]</b>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매출액) × 100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매출액) × 100
	법인세차감전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법인세차감전이익/매출액) × 100
	법인세차감전이익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b>[4단계]</b>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법인세차감전이익 - 법인세비용	총자본순이익률(ROI) (당기순이익/총자산) × 100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유보액/납입자본금) × 100

“ 4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비율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재무비율 분석을 수행 ”

Note: 인건비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하의 인건비를 의미함



“ 현실적인 의미  
도출을 위해 표본의 상하  
10%, 하위 10% 이상치  
(outlier)를 제거한 Trimmean  
사용 ”

### 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산업 재무비율의 평균값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왜곡시키는 이상치(outlier)를 제거해야 한다. 이상치란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매우 큰 값이나 매우 작은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치를 포함하여 평균을 도출하면, 현실적인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Trimmean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Trimmean이란 주어진 자료에서 상위와 하위의 일정범위를 제거한 후 도출한 평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0% Trimmean은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전체 자료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20%의 Trimmean은 상위 10%와 하위 10% 값을 제거한 후 구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위 10%, 하위 10%를 제거한 Trimmean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 6가지 수치를 보여주는 박스플롯(Box Plot) 활용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산술평균은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의 값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을 요약한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Trimmean을 통해 이상치를 제거하더라도 데이터의 편차가 크거나, 편향되어 있는 경우 평균만으로 산업의 일반적인 추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최빈값, 중앙값, 산포도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박스플롯(Box Plot)을 활용하여 평균의 함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상자 수염 그림으로도 불리는 박스플롯은 1사분위값(Q1), 중앙값(median), 3사분위값(Q3)을 상자로 표현하며 최댓값과 최솟값의 범위를 실선으로 보여준다. 산술평균과 함께 박스플롯을 통해 여섯 가지 수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스플롯(Box Plot) 항목별 정의**

#	항목	정의
①	최댓값(max)	상위 10% 제거 후 최댓값
②	3사분위(Q3)	상위25%에 해당하는 값
③	평균값(mean)	산술평균 값
④	중앙값(median)	중앙에 위치한 값
⑤	1사분위(Q1)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
⑥	최솟값(min)	하위 10% 제거 후 최솟값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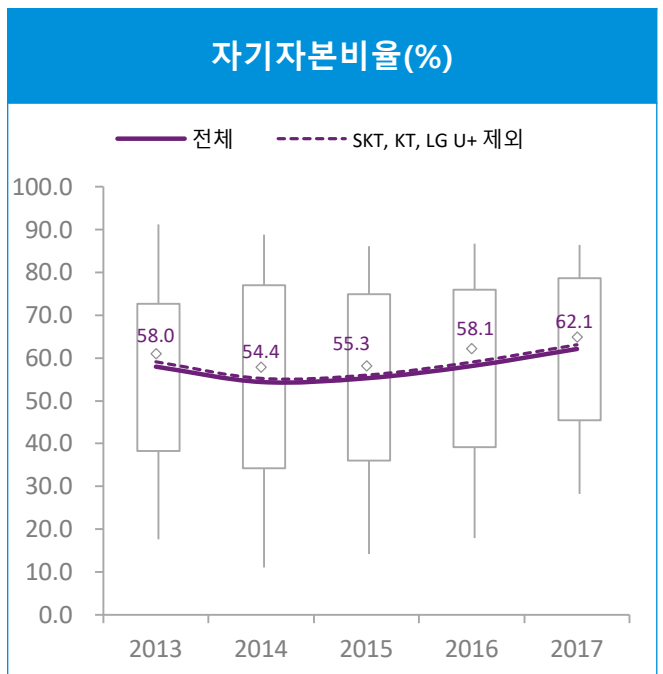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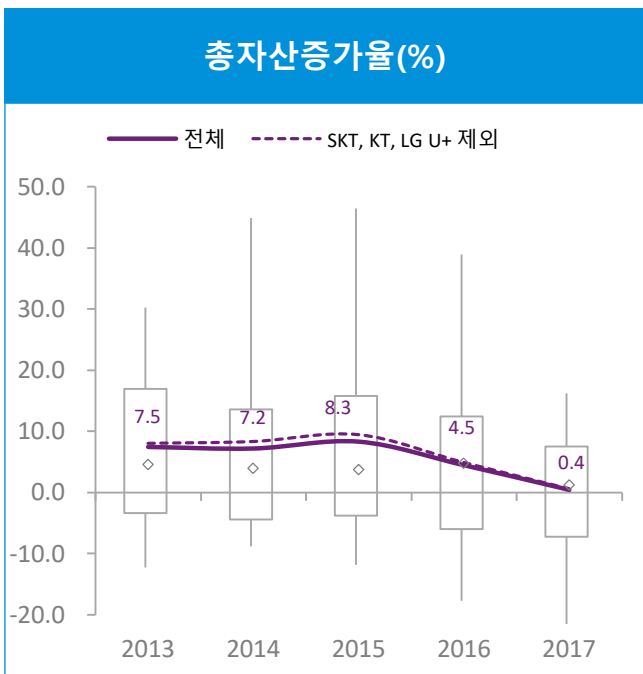
### III. 통신서비스 산업 재무분석

#### 통신서비스 산업의 총자산과 자기자본

“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총자산은 증가 ...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 ”

통신서비스 산업의 평균 총자산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증가폭은 2016년부터 하락했다. 2015년 평균 총자산증가율은 8.3%를 보이며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7년에는 분석기간 중 가장 낮은 0.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위 25%부터 75%까지 위치한 기업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박스플롯 상자의 크기를 확인해볼 때, 대부분의 기업이 -5%에서 10% 사이의 총자산 증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댓값과 최솟값을 보여주는 실선을 봤을 때, 통신서비스 기업들 중에 자산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것이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총자산이 40% 이상 증가한 기업도 있던 반면 2017년에는 총자산이 20% 가량 감소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들 간 자산 증감 변동폭이 더 커졌음을 볼 수 있었다.

자산에서 자본의 영향을 보여주는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4년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54.4%로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58.1%, 2017년 62.1%를 기록했다. 통신서비스 기업들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추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기업들 간의 자기자본비율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기자본비율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은 40%대 수준인 반면, 상위 25%에 위치한 기업들은 70% 이상의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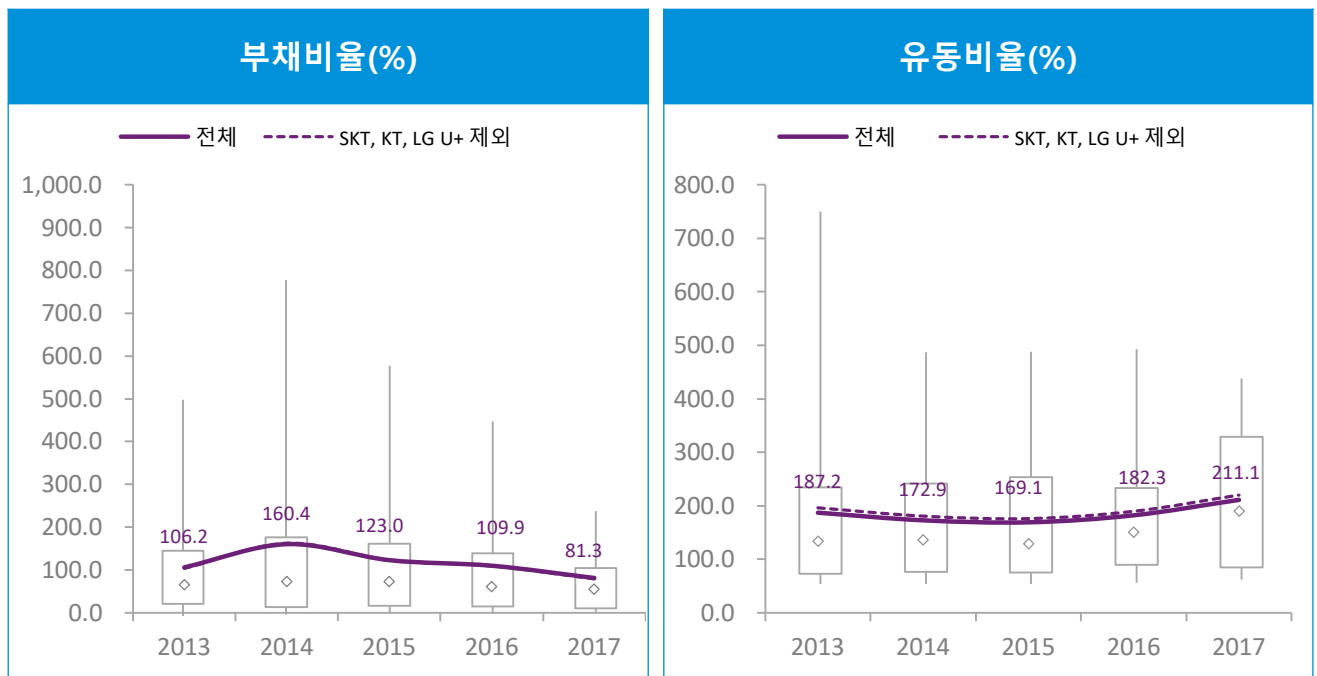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서비스 산업의 부채와 유동성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비교적 큰 변동폭을 보였다. 2013년 106.2%이던 부채비율은 2014년에 160.4%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00% 이하로 낮아지며 81.3%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상위 25%의 기업들에 의해 생긴 결과로 보이는 가운데, 중앙값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100% 이하의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는 700% 이상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보인 기업도 존재했다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014년에 재무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인 기업들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 통신서비스 산업의 부채비율 2017년 100% 이하로 하락 ... 유동비율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우 통신 3사를 포함하고 본 유동비율(실선)이, 통신 3사를 제외한 유동비율(점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신 3사의 유동비율이 대부분 통신서비스업의 기업들보다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측면을 나타낸다. 더불어 유동비율의 평균값과 중앙값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유동비율을 보유한 기업들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

통신서비스 산업의 2013년 9.1% 수준의 매출액증가율은 2014년 5.5%로 하락했다가 2015년 8.3%, 2016년 7.8%로 증가했다. 그 뒤 2017년 0.5%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이며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정부의 요금 관련 규제를 적지 않게 받는 특징을 지닌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본격화되었던 2017년에는 실제로 통신비가 인하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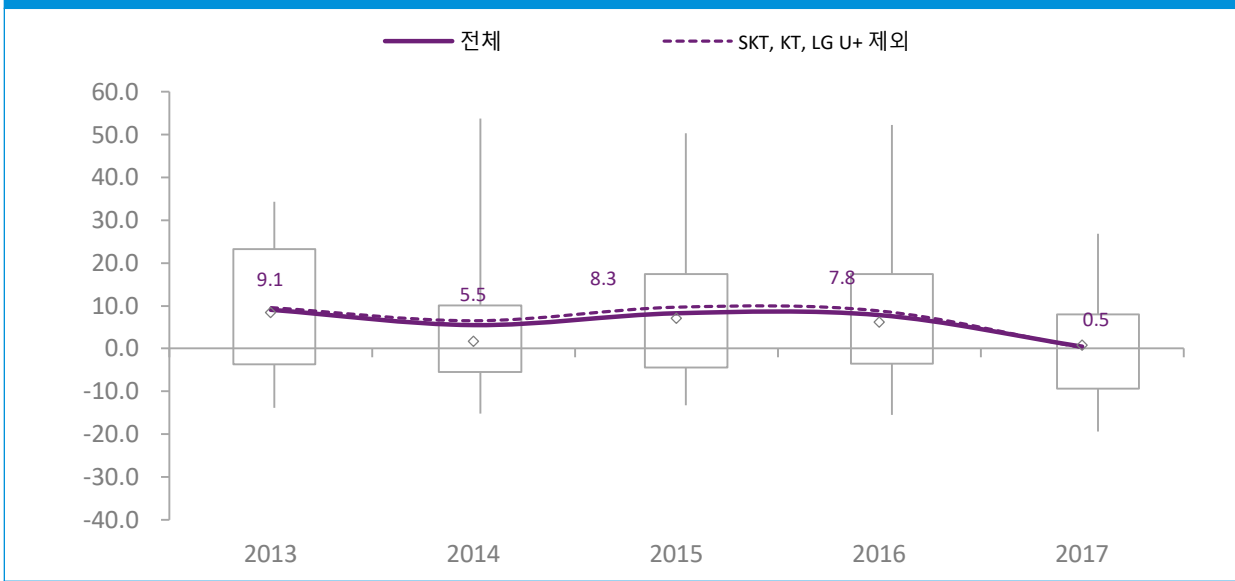
2017년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뒤 2017년 3분기부터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1인당 월매출(ARPU)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변화가 2017년의 매출액증가율의 감소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통신 산업의 특성상 주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통신 기업들은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과 사업다각화에 지속적으로 주안점을 둔다. 주력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매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매출액증가율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편차가 2014년부터 커졌다는 부분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 전년대비 하락... 성장성이 저하된 모습 ”



매출액증가율(%)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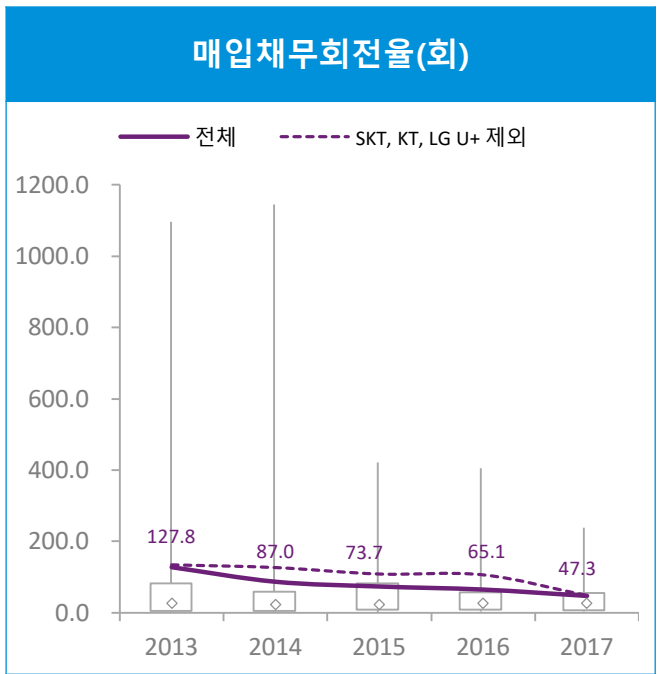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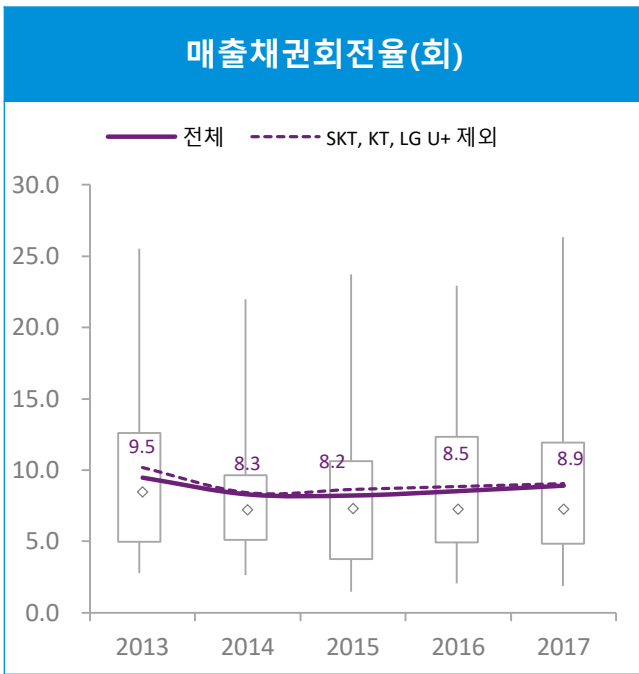
매출채권회전율은 기업의 자금회전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매출채권회전율이 상승하는 것은 현금유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해당 지표가 하락하면 대손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현금유입이 느려진다고 볼 수 있다. 매입채무회전율은 매입채무의 변제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상매출금이나 어음의 회수기간과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변제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자금회전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소 상승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국내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만큼 채권의 회수가 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산업 특성상 재고자산에 대한 투자가 적은 관계로, 매입채무 규모 역시 작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타 산업 대비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입채무회전율이 높게 도출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의 자금회전 활동성은 둔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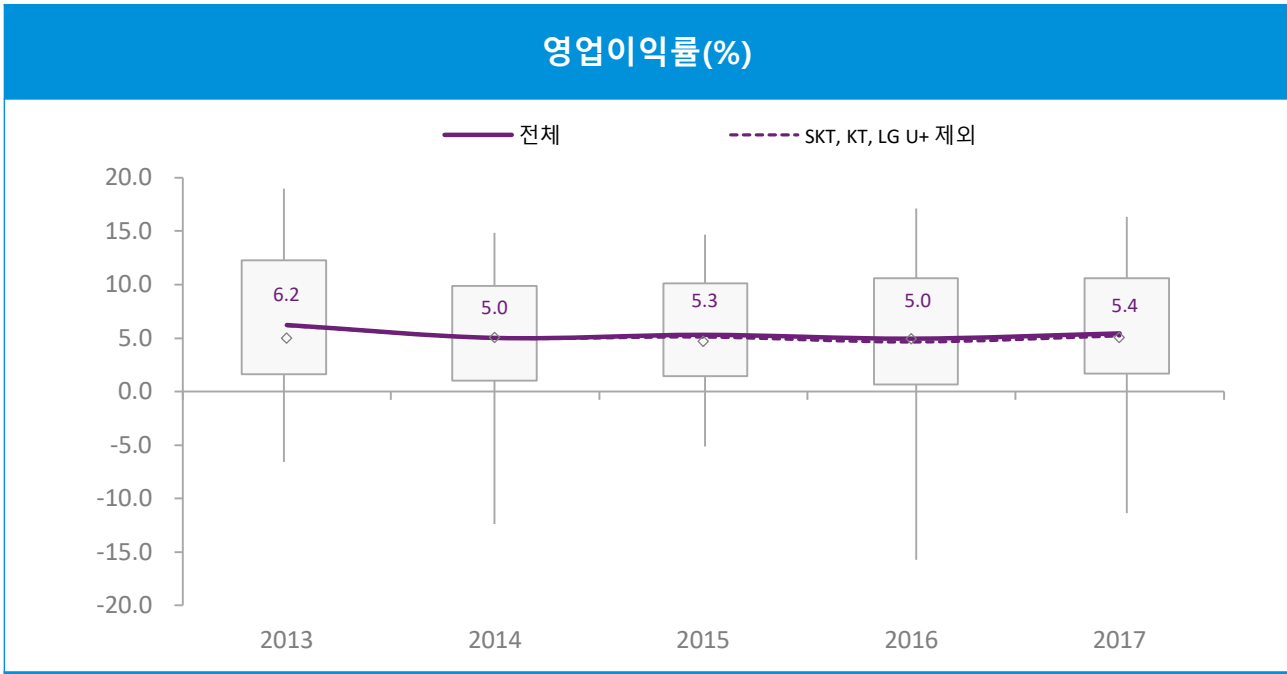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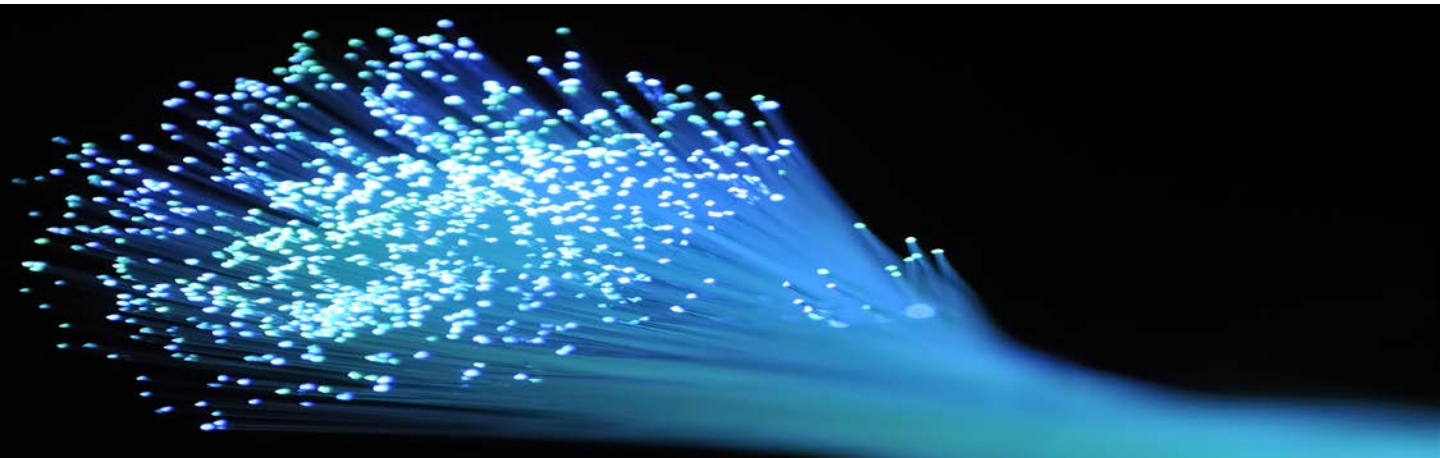
## 통신서비스 산업의 영업이익

“ 통신서비스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대에서 머물고 있는 추세 ”

통신서비스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3년 6.2%를 나타낸 뒤 2014년부터는 5%대에 머물고 있다. 2014년 5.0%까지 하락한 영업이익률은 2017년 5.4%에 이르기까지 소폭 개선되었지만 2013년의 6%대에는 진입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익성의 미개선에 따라, 인건비, 판매비 및 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게 될 경우, 요금인하의 압박을 받게 되는 측면 또한 존재하므로, 통신서비스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살펴봐야 할 필요 또한 있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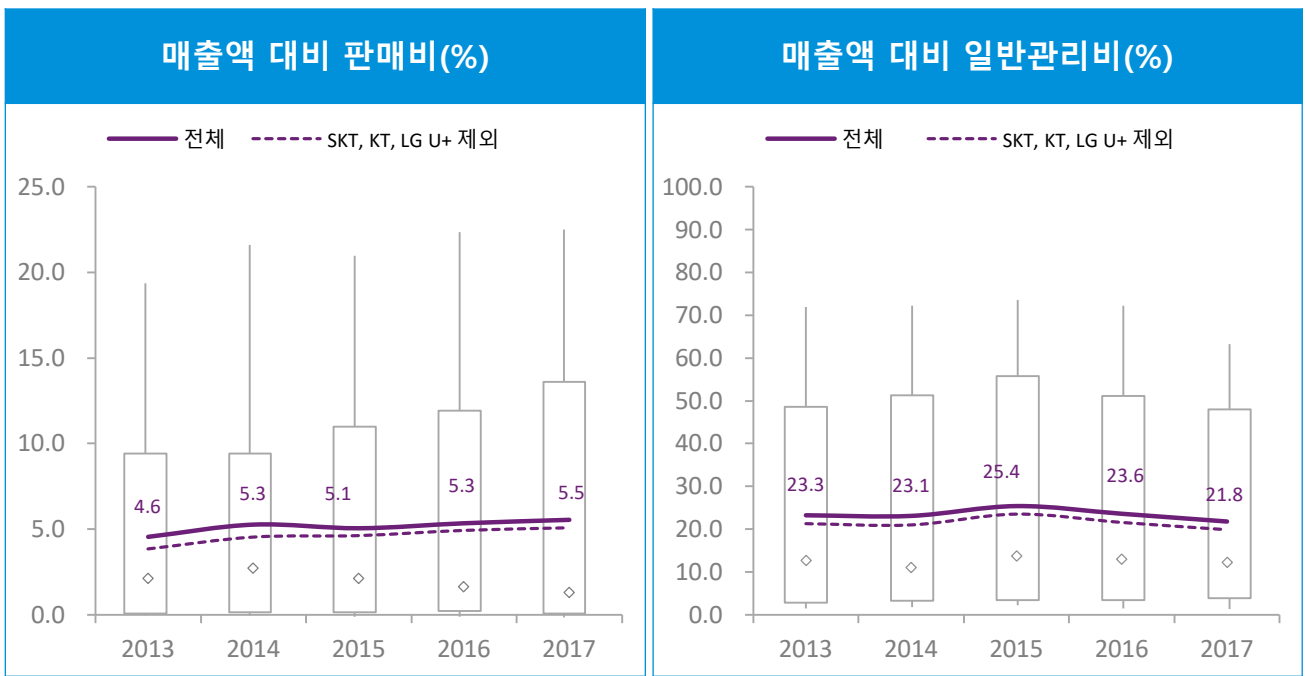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서비스 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

“ 통신서비스 산업의 평균적인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율은 상승 추세...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는 높은 상태로 유지 중 ”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원인 중 하나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5년간 통신서비스 산업에서의 평균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4.6% 수준이었던 매출액 대비 판매비는 2017년 5.5%로 상승했다. 분석기간 동안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동시에 매출 증진을 위해 들어간 판매 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판매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단,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의 평균과 해당 중앙값이 격차를 보인다. 이는 전체 평균을 상승시키는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 기업의 판매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판매비에 투입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7년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는 21.8%를 나타냈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상승한 25.4%를 기록했지만 2016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통신 기업들은 수수료 등의 지출을 감소시키며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고객 수가 증가하면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추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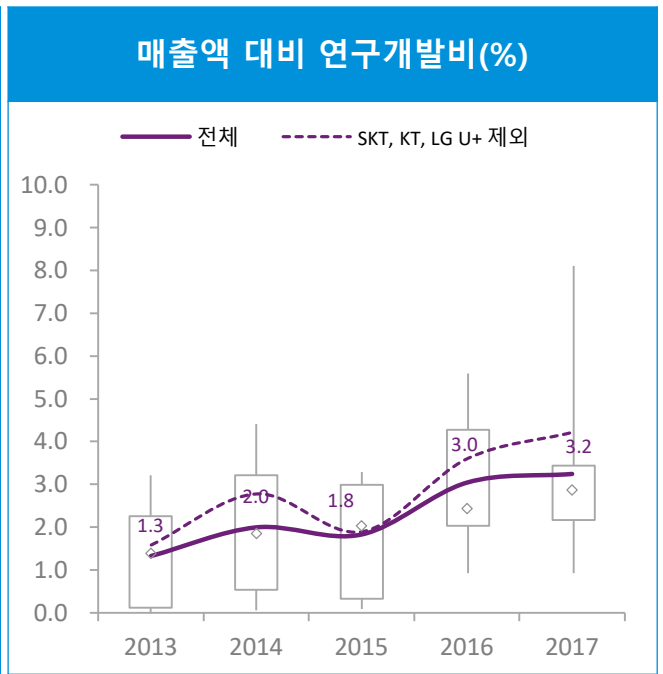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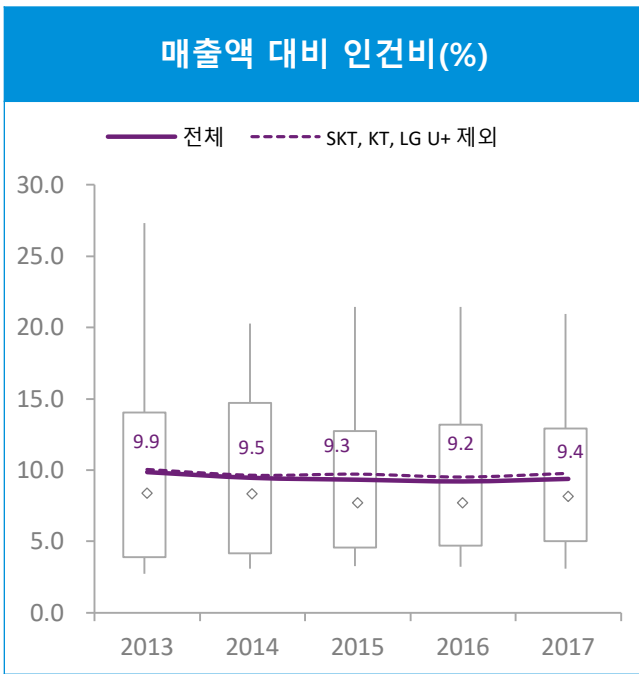
통신서비스 산업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근 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박스플롯의 실선 길이로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기업별 격차는 큰 편으로 도출되었다. 기업 중에는 적게는 3% 수준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유한 기업부터 많게는 25% 이상까지 인건비에 지출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3년 1.3%에서 2017년 3.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5%대에 머물고 있지만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통신서비스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분석기간 중 최저치인 5.0%를 보였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한 2.0%였다. 아울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3.0%에 이른 뒤 2017년 3.2%를 보이며 3%대를 2년간 유지했다.

연구개발은 단기적 수익성 개선보다 장기적 관점의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부분이다. 물론 연구개발비 투자의 질적 측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의 지속적 상승을 놓고 봤을 때,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지속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 부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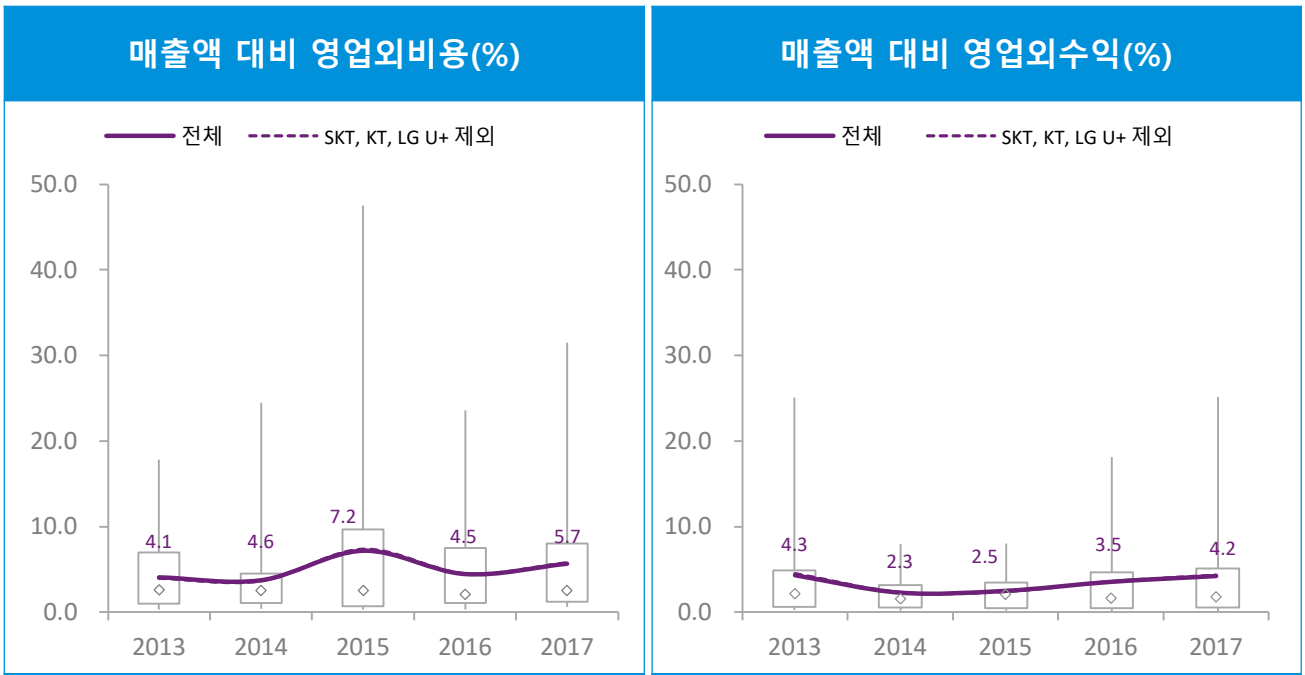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통신서비스 산업의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분석기간 동안 2013년을 제외한 4년간 영업외수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2013년 4.1%, 2014년 4.6%, 2015년 7.2%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하락세로 전환하여 4.5%, 2017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5.7%를 보였다. 영업이익 도출 후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은 2014년 2.3%를 저점으로 반등세를 보이며 2017년 4.2%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통신 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자금을 차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이 영업외수익보다 높게 도출되는 상황에는 이와 같은 특징 또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014~2017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영업외 수익보다 높게 도출 ”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서비스 산업의 영업  
활동의 지속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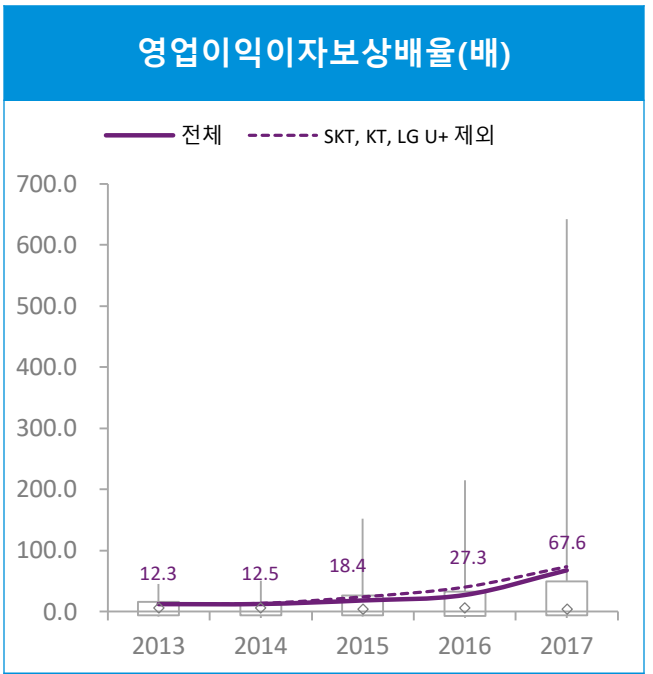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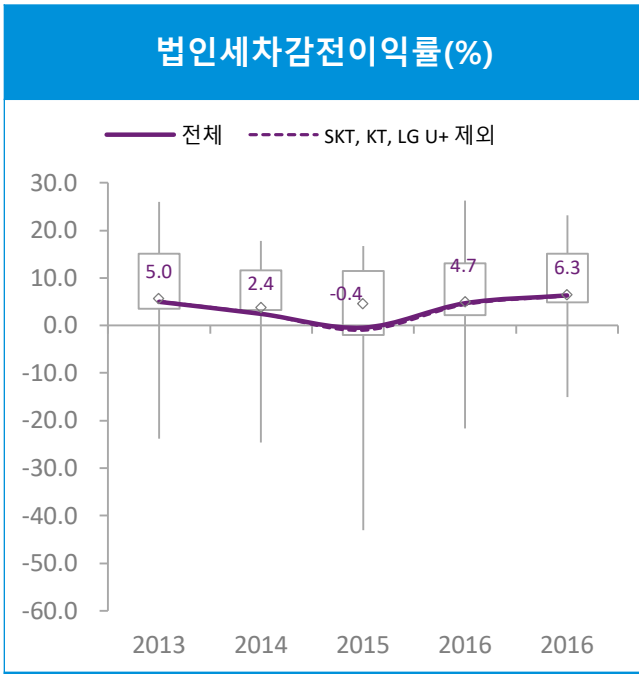
”

## 통신서비스 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이 영업외수익보다 더 높기 때문에,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영업이익률보다 더 낮게 형성되었다. 2013년 5.0%의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2015년까지 감소하여 2015년 -0.4%를 기록했지만 2016년 4.7%로 반등했다. 2017년 6.3%로 5년간 가장 높은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을 보였다.

영업외비용의 중요 세부항목으로 이자비용이 있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인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은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분석기간 동안 모두 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3년 12.3배이던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은 2014년 12.5배, 2015년 18.4배, 2016년 27.3배를 나타냈다. 또한 하위 25%부터 75%까지 기업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박스플롯의 상자의 길이를 보면 특히 2017년 위쪽으로 길어졌다. 이는 최댓값에 해당되는 기업의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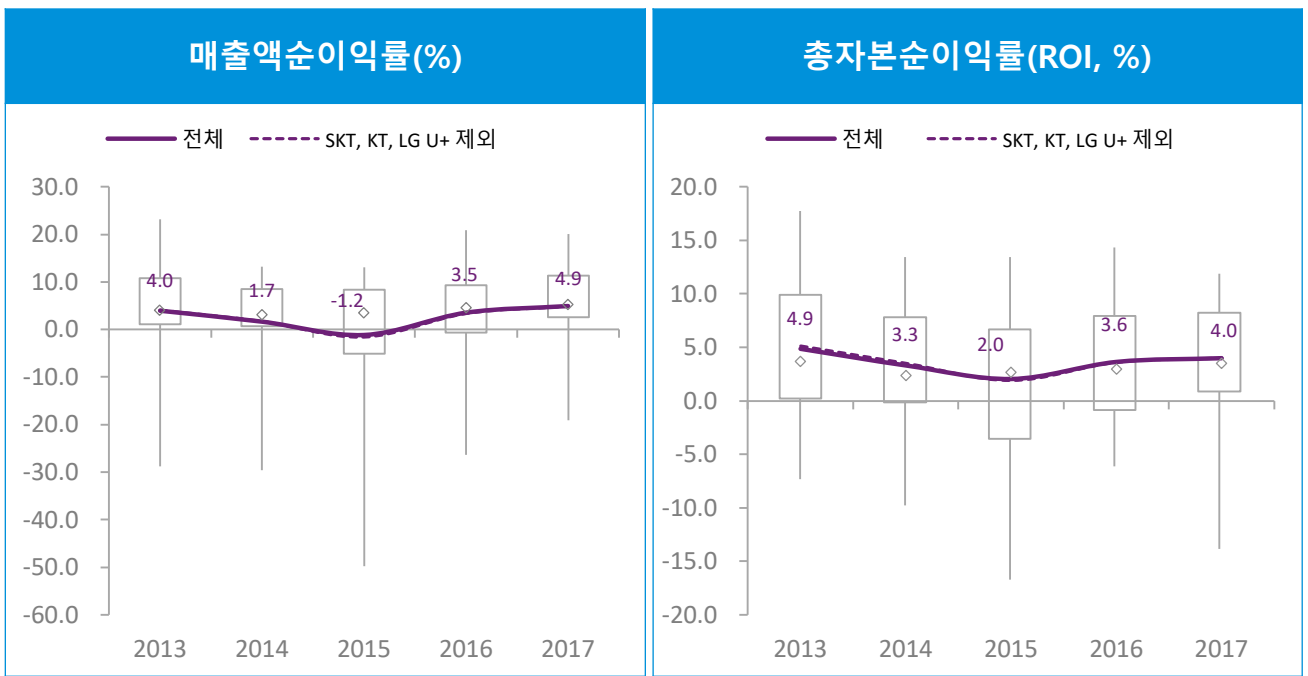
##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순이익률과 ROI

“ 투자 자본의 효율성은 2015년까지 하락하지만 이후 개선세를 보임 ”

통신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매출액순이익률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을 저점으로 이후 반등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기업 활동의 총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이다. 보통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양호한 상태라 볼 수 있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평균 매출액순이익률은 2013년 4.0%에서 2015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1.2%를 나타내며 순손실을 보였다. 2016년 평균 매출액순이익률은 회복되어 3.5%를 나타냈다. 특히 기업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박스플롯의 실선을 봤을 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점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진 뒤 이후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기업에 투자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총자본순이익률(ROI)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은 2013년 4.9%를 나타낸 이후 하락하여 2014년 3.3%, 2015년 2.0%를 보였다.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2016년 3.6%, 2017년 4.0%를 기록하며 투자된 자본의 효율성이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투자 대비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신규 투자 여력은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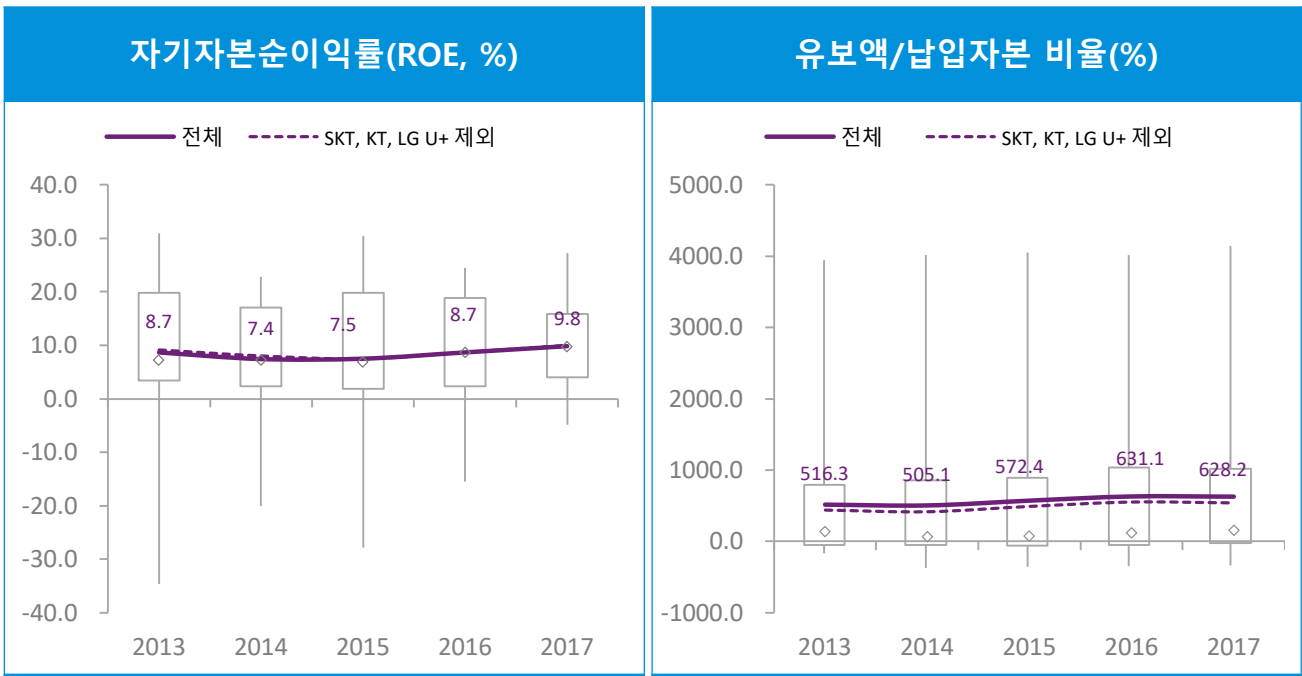
## 통신서비스 산업의 ROE와 유보액

기업 주주의 투자자본 단위당 이익을 측정하는 자기자본수익률(ROE)은 분석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은 2013년 8.7%에서 2014년 7.4%로 하락한 뒤 2015년에는 전년대비 0.1%p 상승한 7.5%를 나타냈다. 그 뒤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6년 8.7%, 2017년 9.8%를 기록했다.

한편 통신서비스 산업의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기업들의 신규 투자 여력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은 2013년 516.3%에서 2014년 505.1%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2015년 572.4%, 2016년 631.1%로 상승했지만 2017년 628.2%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추이를 나타냈다.

분석기간 동안 전체 기업 중 75%에 이르는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1,100% 이하의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의 통신서비스 기업들 중 3,000%에서 4,000% 수준의 높은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을 보유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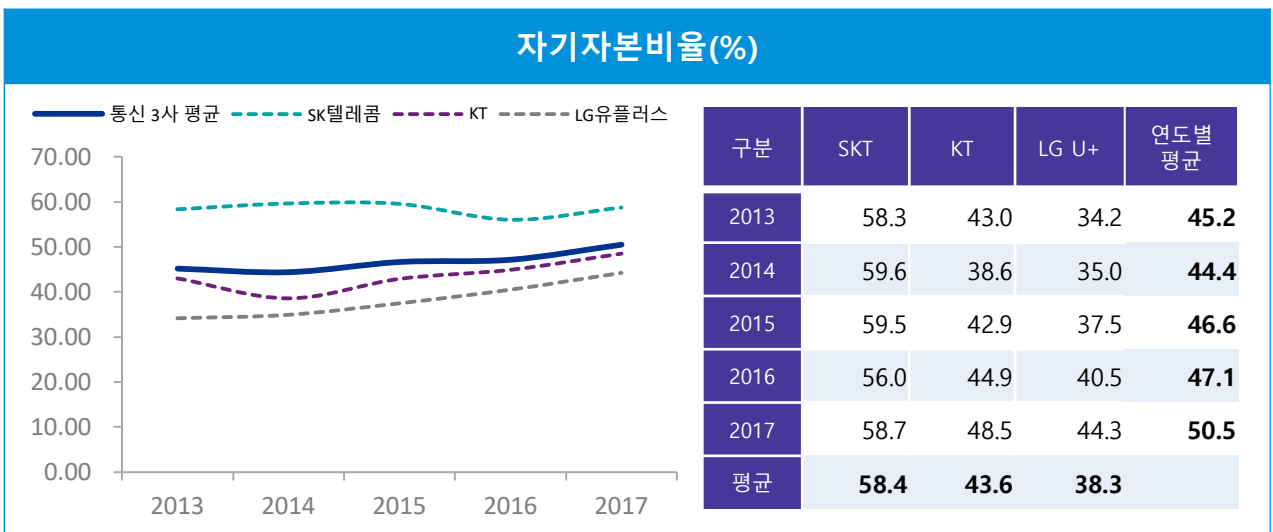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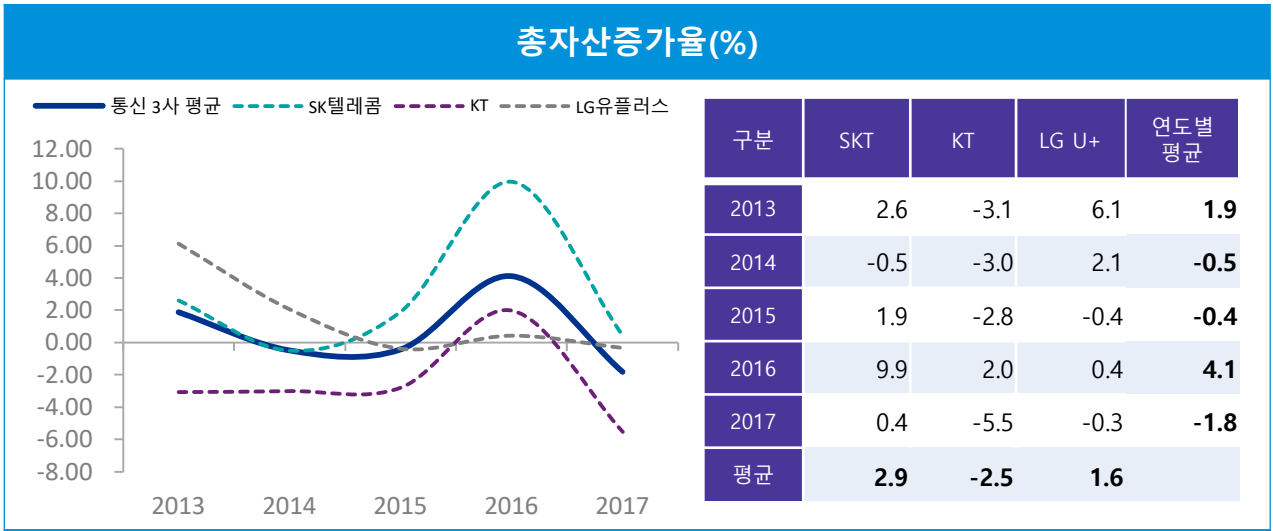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IV. 통신 3사 재무분석 통신 3사의 미래 성장잠재력

“ 통신 3사의 자기자본비율은 SKT, KT, LG U+ 순으로 높음 ”

2017년 통신 3사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하락했다. 2017년 통신 3사의 총자산증가율은 -1.8%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13년 통신 3사 평균 1.9%를 보인 데 이어 2014년 -0.5%로 반전되었으며, 2015년 -0.4%로 2년 연속 총자산증가율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그 뒤 2016년 4.1%로 큰 폭 상승했으며, 2017년에는 -1.8%로 다시 마이너스로 변환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은 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SK텔레콤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58.4%였던 반면, KT는 43.6%, LG유플러스는 38.3%를 보였다. SK텔레콤과 KT의 자기자본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2013년 34.2%에서 2017년 44.3%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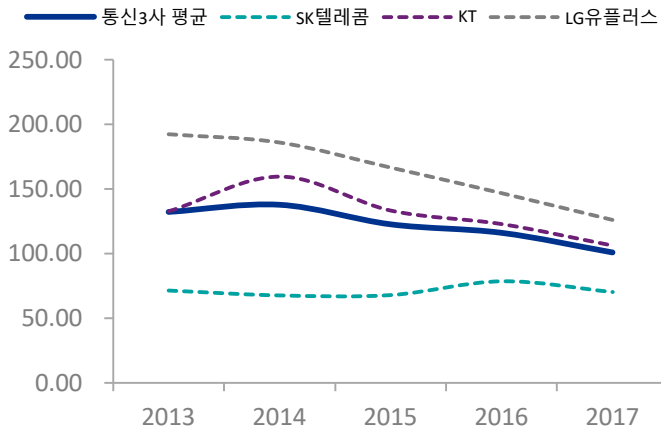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 3사 가운데 LG U+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지만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통신 3사의 부채비율은 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1.2%의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을 보인 반면, KT는 130.9%, LG유플러스는 163.6%의 부채비율을 나타냈다.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지만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의 감소세를 보이며 2013년 192.6%이던 높은 부채비율을 낮춰 2017년 126.0%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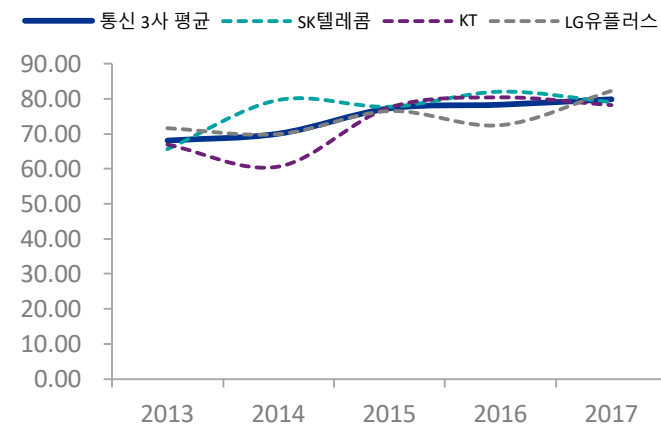
유동비율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살펴볼 때, 통신 3사의 유동비율은 2017년 평균 79.0%로 나타났다. 2013년 SK텔레콤의 유동비율은 통신 3사의 5년간 수치 중 가장 낮은 65.7%였으나 2017년에는 통신 3사의 평균과도 일치하는 79.0%를 보이며 지불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전년대비 KT의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유동비율은 하락하여 한해 동안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졌다가 차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부채비율(%)



구분	SKT	KT	LG U+	연도별 평균
2013	71.4	132.7	192.6	<b>132.2</b>
2014	67.7	159.4	186.1	<b>137.8</b>
2015	68.0	133.3	166.7	<b>122.6</b>
2016	78.5	122.8	146.8	<b>116.0</b>
2017	70.3	106.3	126.0	<b>100.9</b>
평균	<b>71.2</b>	<b>130.9</b>	<b>163.6</b>	

## 유동비율(%)



구분	SKT	KT	LG U+	연도별 평균
2013	65.7	66.9	71.6	<b>65.7</b>
2014	79.6	60.6	69.9	<b>79.6</b>
2015	77.7	77.6	76.5	<b>77.7</b>
2016	82.0	80.5	72.5	<b>82.0</b>
2017	79.0	78.3	82.3	<b>79.0</b>
평균	<b>76.8</b>	<b>72.8</b>	<b>74.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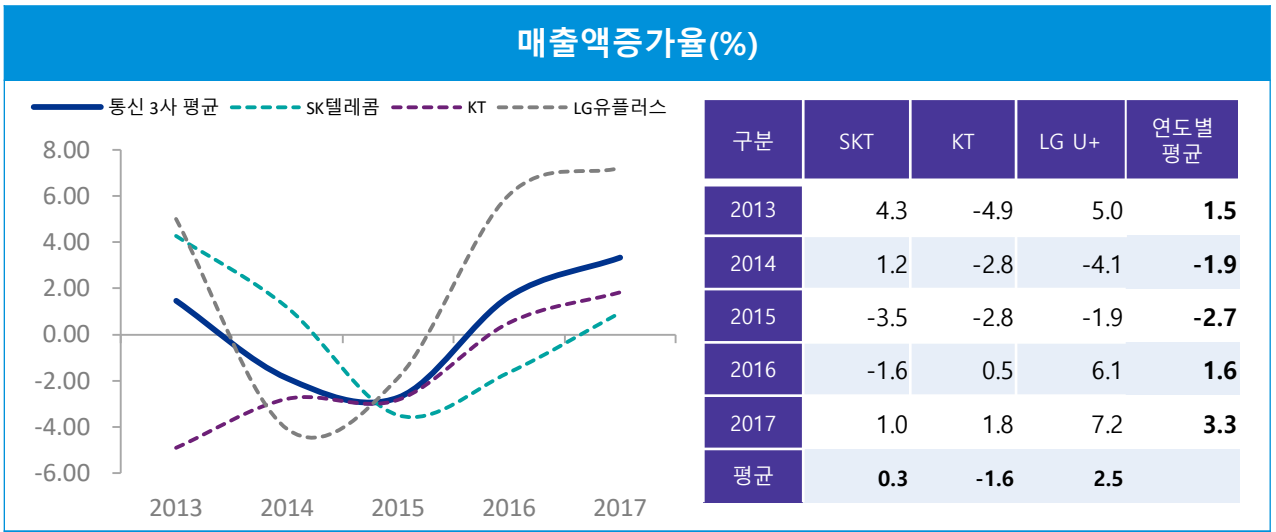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 3사의 매출

“ 통신 3사의 매출액증가율은 5년간 가장 낮은 수치가 2015년에 도출된 뒤 2016년과 2017년에는 상승세 ”

통신 3사의 매출액증가율 추이는 회사별로 상이하며 이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매출 변동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의 매출액증가율은 SK텔레콤 1.0%, KT 1.8%, LG유플러스는 7.2%였다. 통신 3사의 평균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증가율이 하락하여 2014년과 2015년에는 마이너스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였지만,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2016년 1.6%, 2017년 3.3%에 이르렀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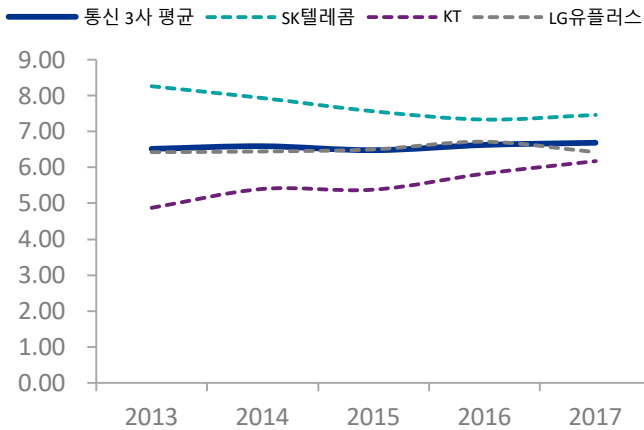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 3사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KT의 매출채권회전율 및 매입채무회전율은 증가 추세 ... 현금유입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지급 능력이 향상됨을 보여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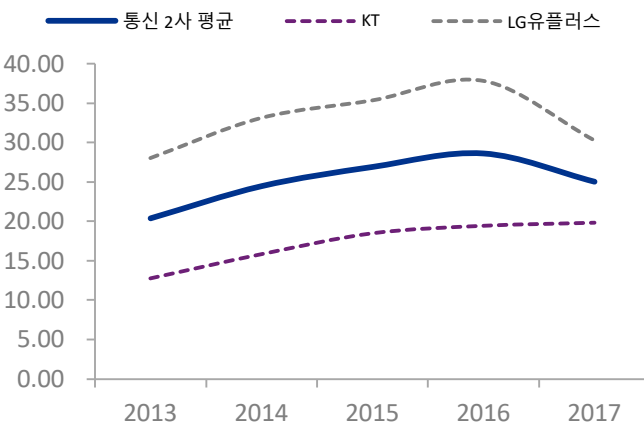
매출채권회전율이 상승하는 것은 현금유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나, 하락하면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현금유입이 느려진다고 볼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통신 3사의 매출채권회전율 추이는 각 사별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각 사의 채권회수 정책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통신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의 매출채권회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LG유플러스, KT순으로 이었다. KT의 매입채무회전율은 지속 증가하여 지급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매입채무회전율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없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 매출채권회전율(회)



구분	SKT	KT	LG U+	연도별 평균
2013	8.3	4.9	6.4	6.5
2014	7.9	5.4	6.4	6.6
2015	7.6	5.4	6.5	6.5
2016	7.3	5.8	6.7	6.6
2017	7.5	6.2	6.4	6.7
평균	7.7	5.5	6.5	

### 매입채무회전율(회)



구분	SKT	KT	LG U+	연도별 평균
2013	-	12.8	28.0	20.4
2014	-	15.8	33.1	24.5
2015	-	18.5	35.3	26.9
2016	-	19.4	37.8	28.6
2017	-	19.8	30.2	25.0
평균	-	17.3	32.9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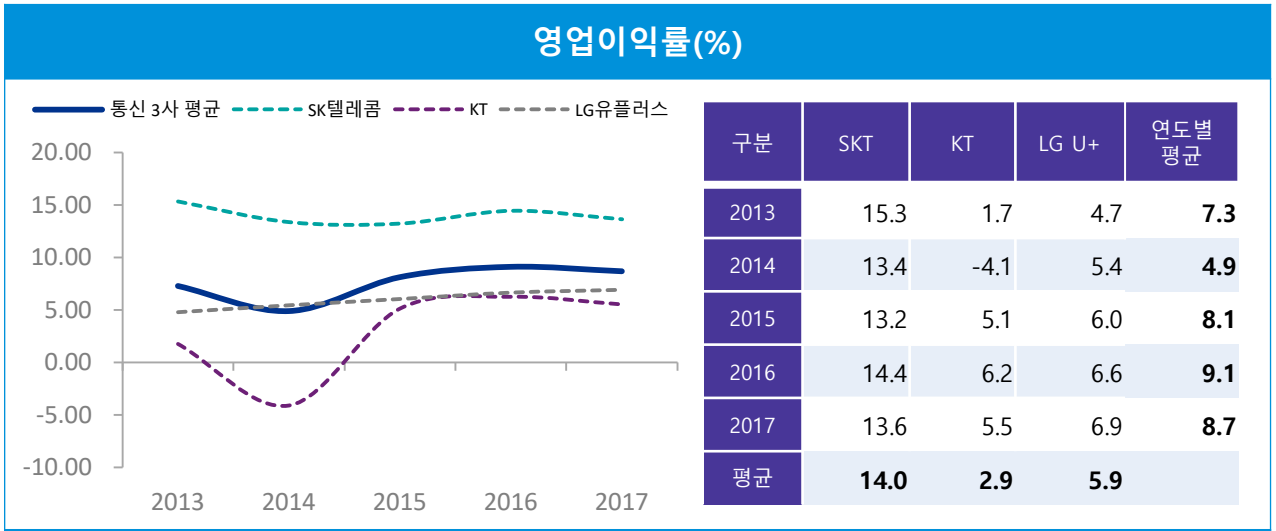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통신 3사 중 SK텔레콤이 타 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SK텔레콤의 영업이익률은 13.6%로 LG유플러스의 6.9%, KT의 5.5%보다 높았다.

“ 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은 SKT, LG U+, KT순으로 높음 ”

KT의 경우, 2014년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하락하여 -4.1%라는 영업손실을 냈지만,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4.7%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낸 뒤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용항목들을 다음 장부터 확인해보고자 한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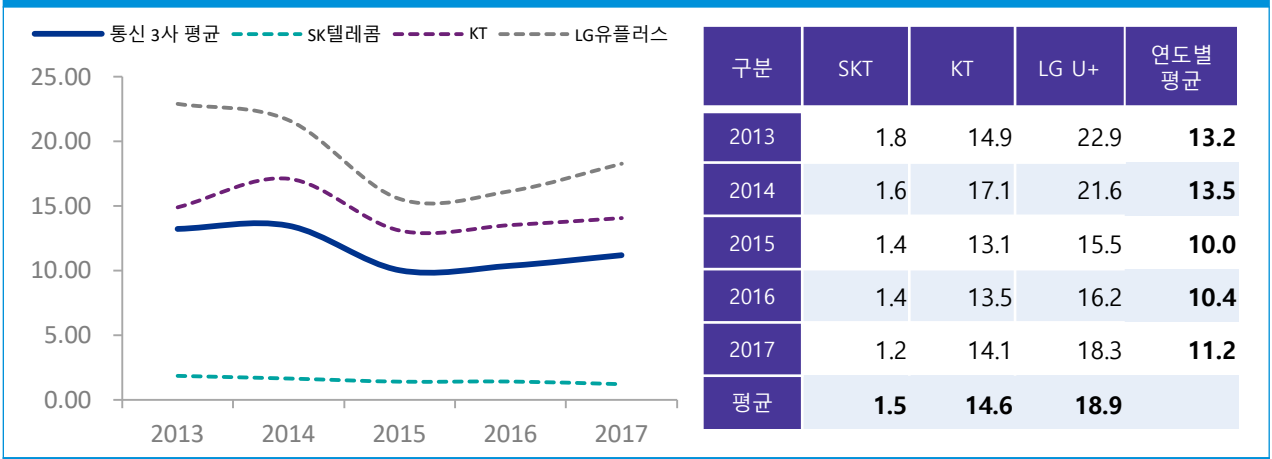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 3사의 판매비와 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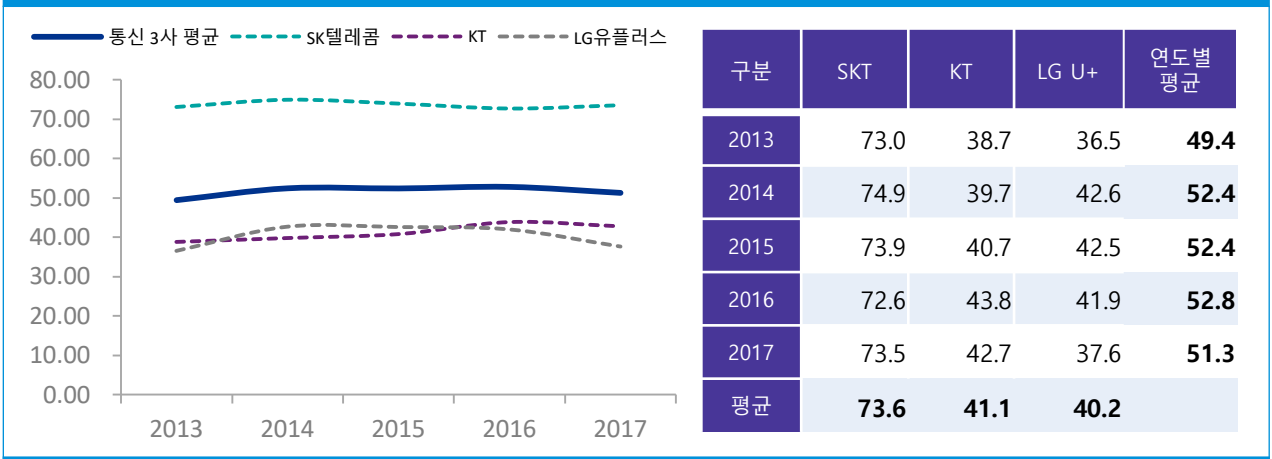
“ KT 및 LG U+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는 2015년부터 상승하는 추세 ”

판매비와 관리비 사이의 변동은 자사의 유통채널을 활용하는지, 혹은 사외유통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SK텔레콤의 2017년 평균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중은 1.2%로 통신 3사 중 가장 낮았다. KT는 14.1%, LG유플러스는 18.3%로 나타났다. 통신 3사의 평균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중은 2015년과 2016년 10%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이는 2014년 10월부터 실시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는 SK텔레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SK텔레콤은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중을 갖고 있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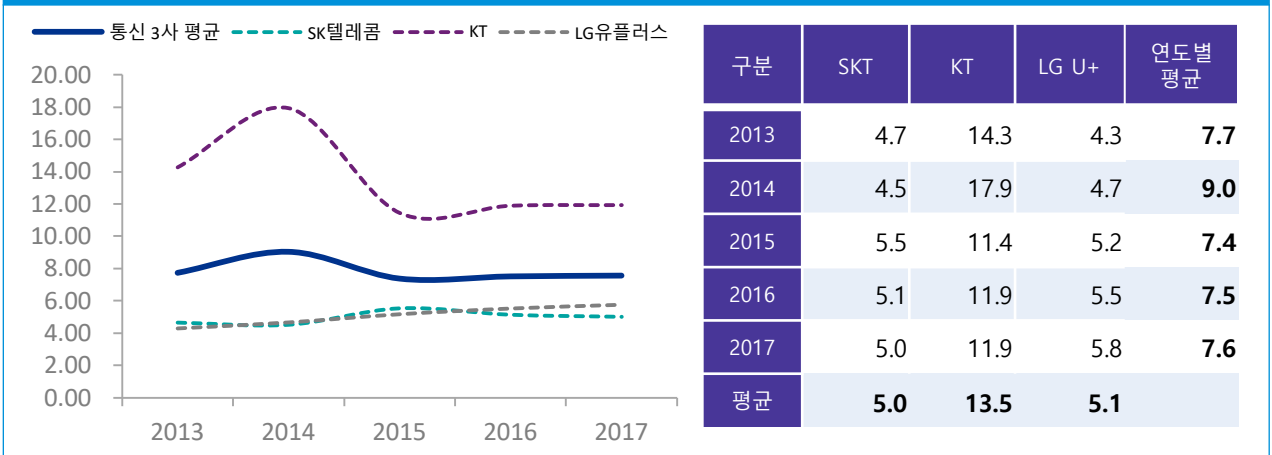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 3사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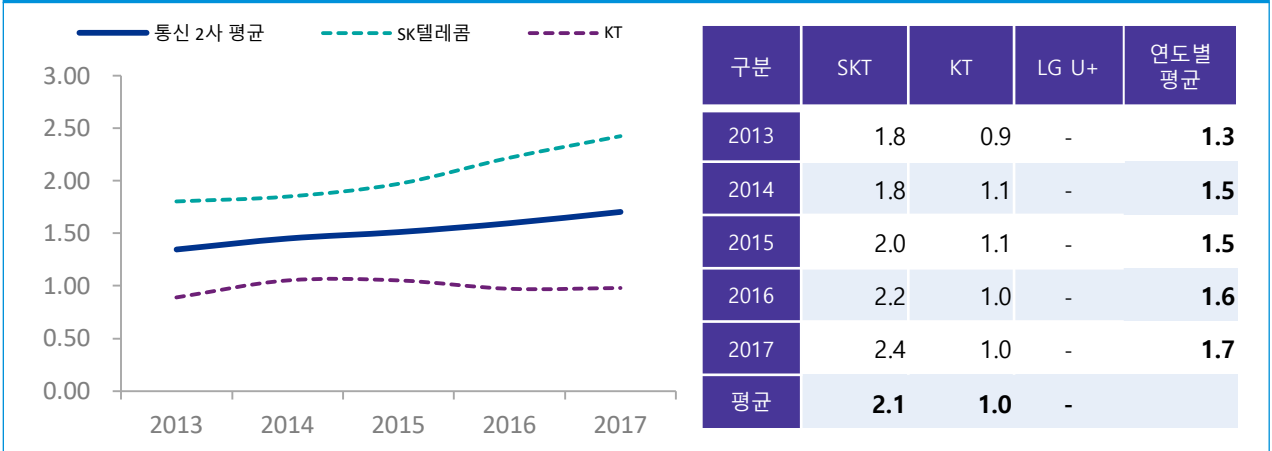
“ SKT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 ”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비교적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3년 4.7%였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5년 5.5%로 상승했으며 2017년에는 5.0%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분석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2013년 4.3%에서 2017년 5.8%로 상승했다. KT의 경우, 2013년 14.3%이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14년 17.9%까지 상승한 뒤 점차 하락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SK텔레콤은 5년간 매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확대하여 2017년 2.4%에 이르렀다. KT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대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유지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연구개발비 관련 공개 정보가 없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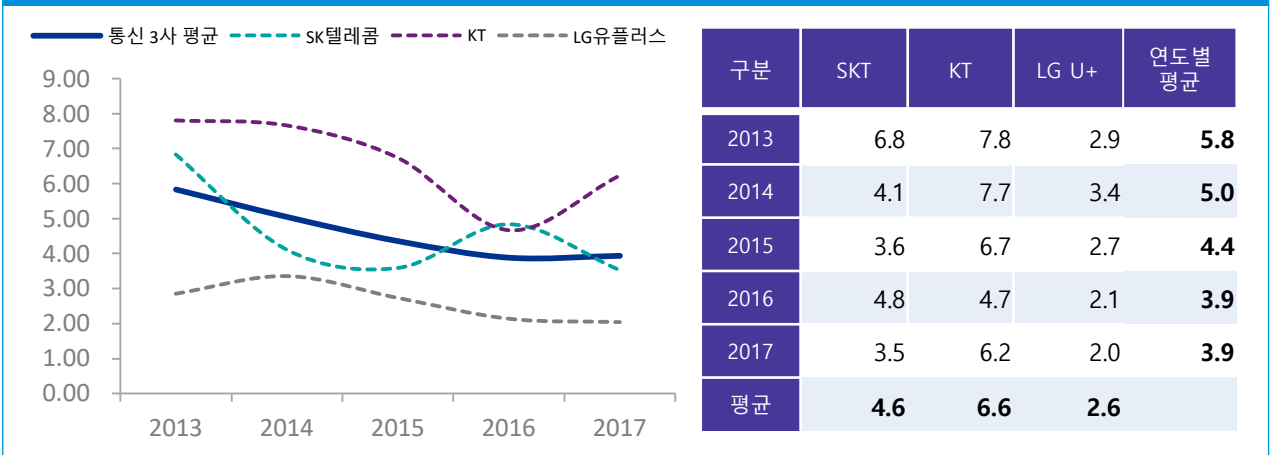
## 통신 3사의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

“ SKT 및 LG U+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영업외수익보다 높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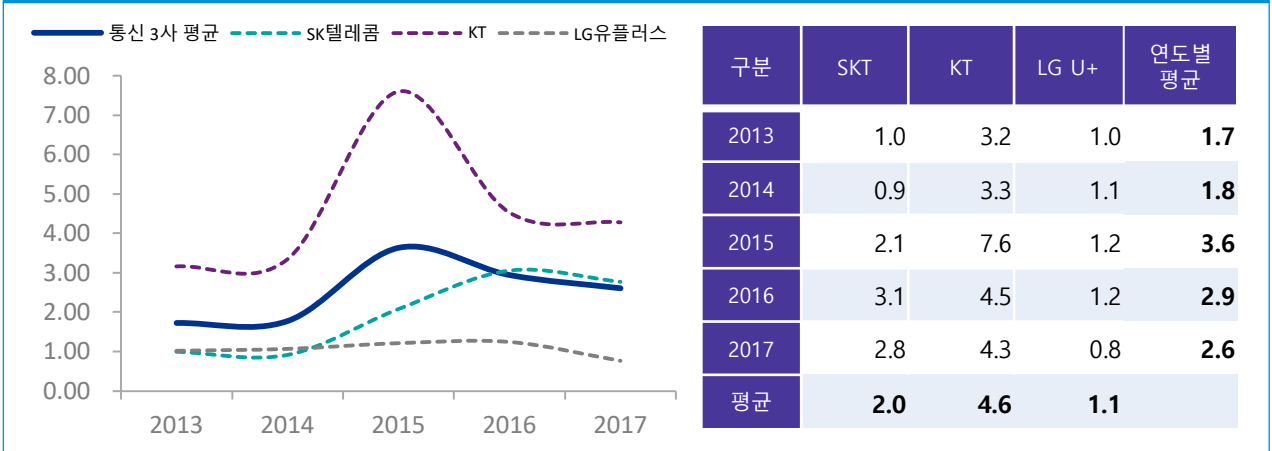
지난 5년간 통신 3사의 평균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영업이익률보다 낮아, 영업외비용이 영업외수익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의 평균은 5년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7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KT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SKT가 3.5%, LG유플러스가 2.0%로 뒤를 이었다. KT는 2013년부터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비중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며, LG유플러스 또한 2014년을 기준으로 영업외비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을 살펴보면 KT가 4.3%로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이 2.8%, LG유플러스가 0.8%로 그 뒤를 이었다.

###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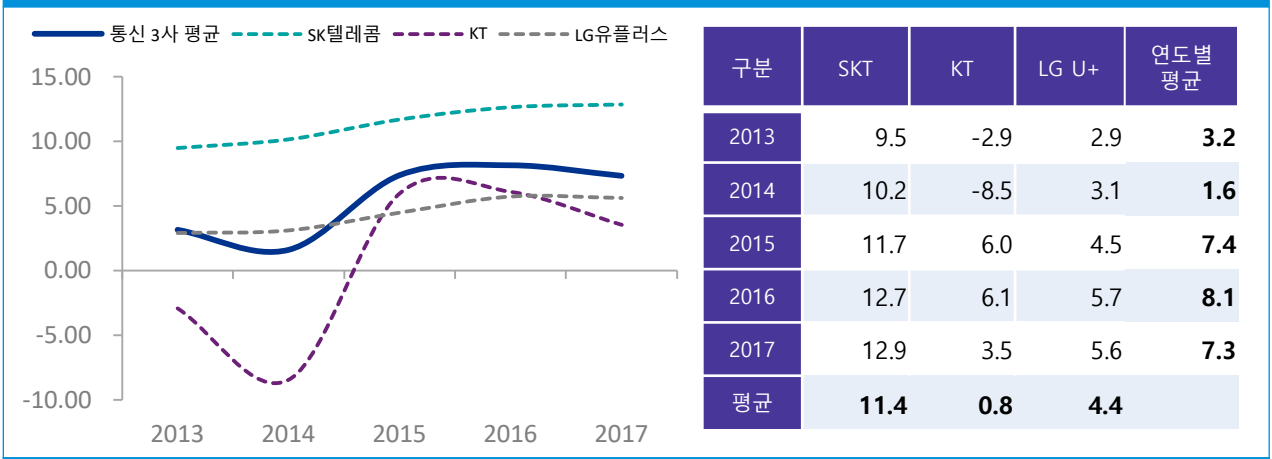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 3사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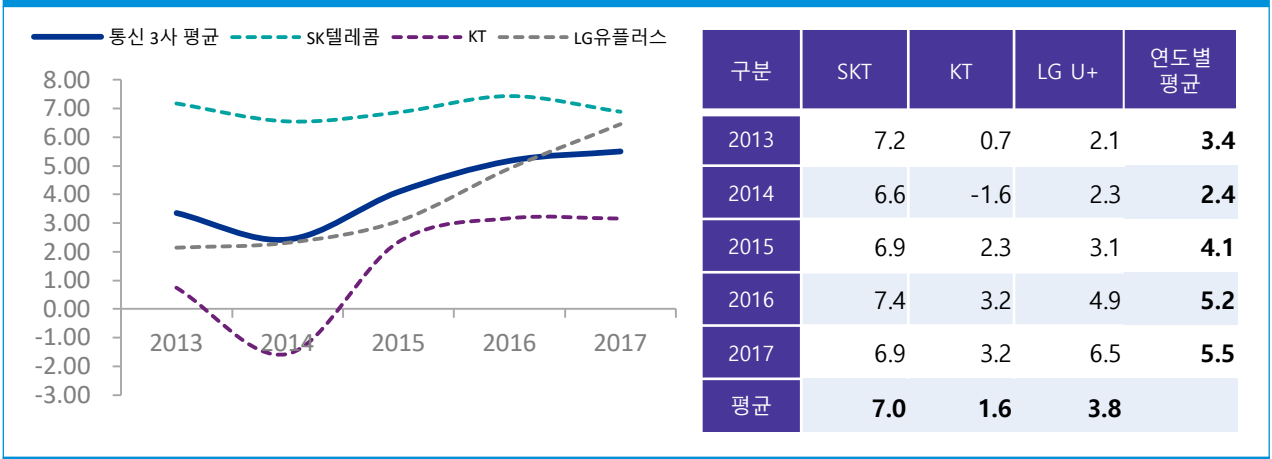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통신 3사의 평균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낮게 형성** ”

2017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의 경우 SK텔레콤이 12.9%로 가장 높았으며, LG유플러스가 5.6%, KT가 3.5%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의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분석기간 동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SK텔레콤 또한 2013년부터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KT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이 마이너스였지만 2015년부터 다시 플러스로 회복되며 안정을 되찾았다. 2017년 통신 3사의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은 SK텔레콤이 6.9배로 가장 높았으며, LG유플러스가 6.5배, KT가 3.2배로 뒤를 이었다. 2014년 KT의 경우, 해당 재무비율이 -1.6배를 보이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해도 있었지만,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배)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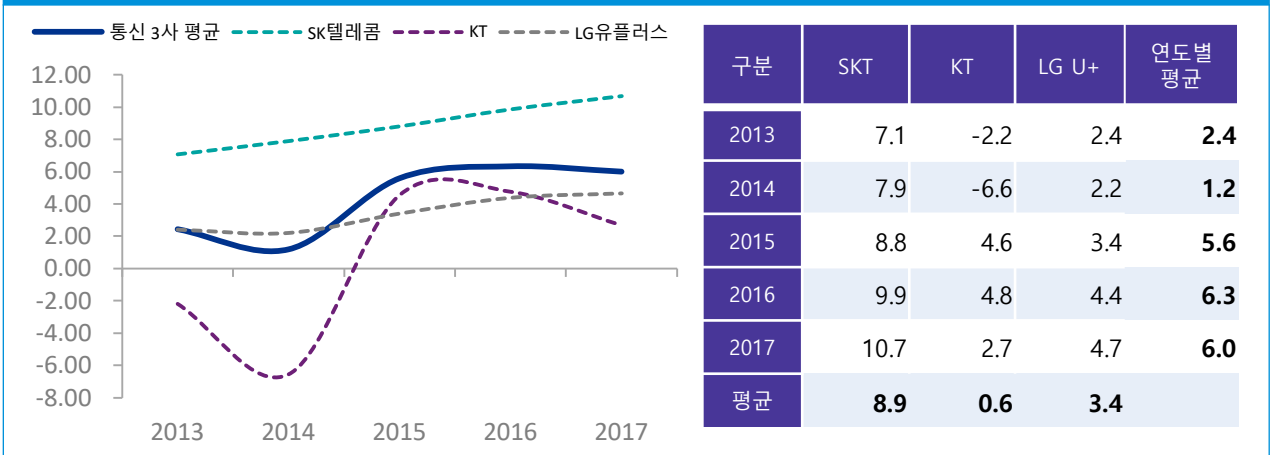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 통신 3사의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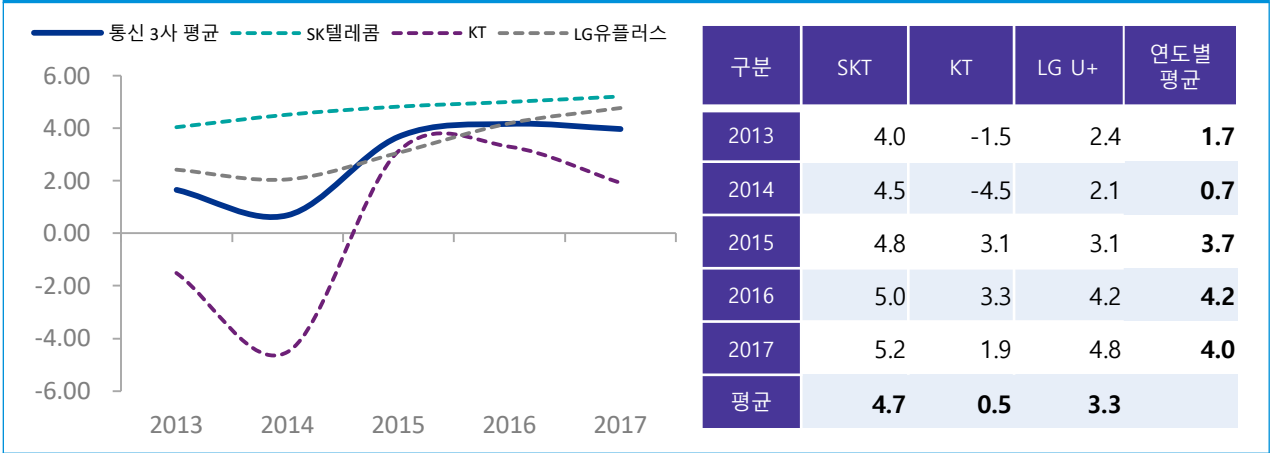
“ SKT의 2017년 매출액 순이익률은 KT, LG U+보다 2배 이상 높음 ”

기업활동의 최종적인 회계적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매출액순이익률은 2014년의 통신 3사 평균 1.2%에서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매출액순이익률은 SK텔레콤이 10.7%로 가장 높았으며, LG유플러스가 4.7%, KT가 2.7%로 뒤를 이었다. KT는 지난 5년간 매출액순이익률이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을 보였다. KT는 2013년과 2014년에 마이너스의 매출액순이익률을 보였지만 2015년과 2016년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하락했다. 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총자본순이익률(ROI)도 매출액순이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2017년 총자본순이익률은 SK텔레콤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LG유플러스가 4.8%, KT가 1.9%로 뒤를 이었다. 과거에 비해 통신 3사의 총자본순이익률은 2016년부터 4%대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ROI, %)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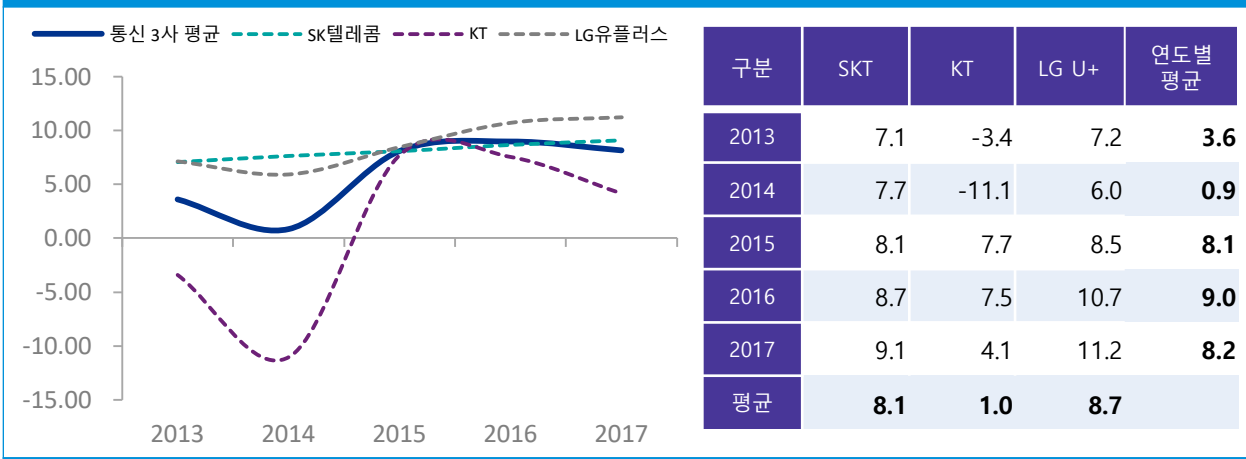
## 재무비율로 본 통신 산업 2013~2017년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ROE의 경우, 앞서 살펴본 통신 3사의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본순이익률(ROI)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분석기간 동안 LG유플러스의 ROE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11.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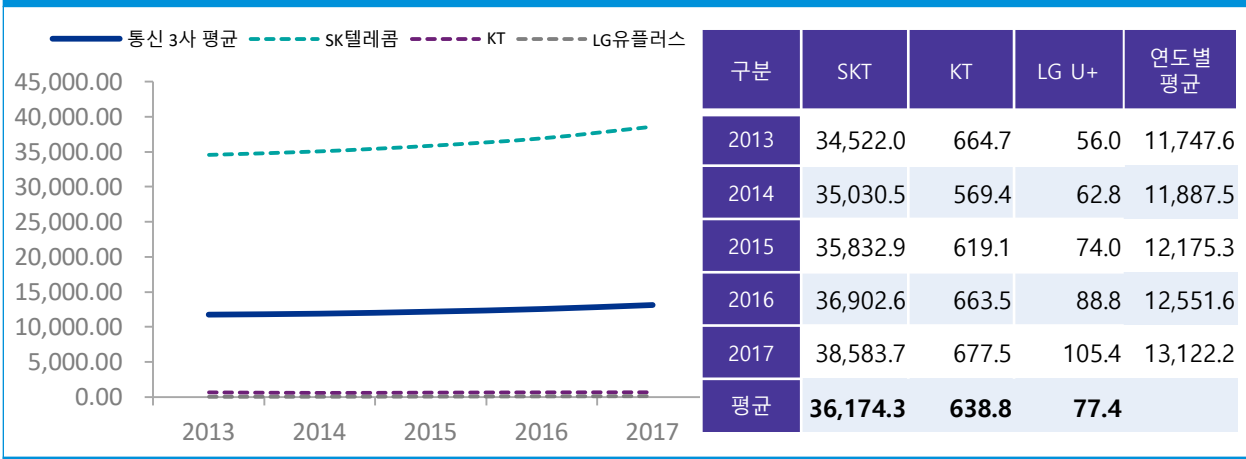
“ 통신 3사의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  
증가 추세 . . . SKT의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은 통신 3사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음 ”

통신 3사의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의 경우, 통신 3사 모두 2014년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신 3사의 신규투자 여력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2017년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의 경우 SK텔레콤이 38,583.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KT가 677.5%, LG유플러스가 105.4%로 이었다.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V.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영 환경 변화를 회계적·재무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징적인 재무비율의 추세를 통해 통신서비스 산업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진행했다. 물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모든 주요 이슈들과 숨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여러 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시점에, 기업의 핵심 사업을 기준으로 세부 업종에 분류되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각 사에서 공개하는 재무제표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가능한 한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와 재무적 트렌드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평균 재무비율의 모니터링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재무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통신서비스 산업의 지난 5년간 재무비율을 통해 살펴본 성장의 조건

통신서비스 산업은 통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방대한 인프라와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타 산업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 56개의 기업이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국가로 2019년 5G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시대 속에서 미래에 국내 통신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5년간 여정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통신서비스 산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3가지 재무적 관점에서의 과제를 도출했다.

“ 지난 5년간의 통신서비스 산업의 성장 여정을 통해 재무성과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 ”

#### 재무성과 개선을 위한 과제

- I      **답보 상태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용관리 필요**
- II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 투자는 도약의 지렛대**
- III    **통신 관련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 확보**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적 과제 ① **답보 상태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용관리 필요**

“  
비용관리의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 지속성장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발판  
마련 필요  
”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은 2014년 5.5%, 2015년 8.3%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전년대비 하락한 7.8%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2017년에는 0.5%로 큰 감소폭을 보이며 하락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통신서비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6.2%, 2014년 5.0%, 2015년 5.3%, 2016년 5.0%, 2017년 5.4%를 나타냈다. 2014년부터 5%대의 영업이익률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처럼 매출의 절대 규모는 매해 늘어나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매해 유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출 증대를 위한 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수 중심의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신규 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관리출혈 경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비용 항목들 중에서도, 매출액 대비 판매비가 꾸준히 상승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중은 2013년 4.6%에서 2017년 5.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7년 통신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중은 판매비 비중보다 현저히 높은 21.8%를 나타냈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통신 관련 사용권, 지급수수료와 같은 고정비용 성격의 일반관리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전 범위에서 비용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용관리는 미래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과제 ②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 투자는 도약의 지렛대**

“  
5년간 통신서비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높아져...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지난 5년간 통신서비스의 재무비율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다.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매출의 일부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3년 1.3%에서 2014년 2.0%, 2015년 1.8%, 2016년 3.0%, 2017년 3.2%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통신 산업을 리딩하기 위한 진폭제가 될 것이다. 글로벌 통신서비스 산업의 트렌드에 발맞춰 통신 업계 또한 국내 내수 시장을 뛰어넘어 해외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협업 및 전략적 연구개발 제휴, 특허 전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개발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재무적 과제 ③ 통신 관련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 확보

통신서비스 산업은 네트워크와 통신망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초기투자가 요구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다양한 정책의 영향권하에 있는 산업이다. 통신사들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유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서비스가 공공재, 필수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정책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통신 관련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무적 안정성 확보 필수 ”

통신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업계에 속한 기업들은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성과보다 부작용이 많은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단통법의 일몰 조항으로 도입되었던 지원금상한제 조항이 2017년 10월 폐지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보편 요금제’,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상향 조정’, ‘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이슈화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유통점 간의 판매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제공하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영세 판매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발의이다. 이처럼 통신서비스를 둘러싼 제도와 법률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며 지속적으로 발의되며 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도 통신서비스 산업의 기업들이 정책 및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세계화 트렌드에 따른 표준화도 들 수 있다. 통신 업계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통신 정책 및 기술개발 사례, M&A 동향은 국내 통신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6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을 폐지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5G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망 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19년 상반기 중에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다양한 외부 환경과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며 이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는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재무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봤을 때,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보액 또한 확대하고 있다. 규제와 정책변화로 인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적으로 대비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미래에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Appendix – 통신 산업 분석 대상 기업

무선통신업 (7)	에스피씨클라우드
	에어미디어
	에어패스
	케이티파워텔
	한국전파기지국
	LG유플러스
	SK텔레콤
유선통신업 (13)	대한강군비씨앤
	데이콤크로싱
	드림라인
	미디어로그
	서울국제전화
	세종텔레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텔링크
	오버넷
	원스토어
	일진씨투씨
	케이티
	케이티링크스
위성통신업 (1)	케이티셋
통신 재판매업 (17)	버라이즌코리아
	비티글로벌서비스코리아
	싱가폴텔레콤코리아
	씨엔커뮤니케이션
	아이즈비전
	앤알커뮤니케이션
	에넥스텔레콤

통신 재판매업 (17)	엔티티코리아
	이지모바일
	인스코비
	케이디디아이코리아
	케이티엠모바일
	케이티이엔지코어
	팩넷서비스코리아
	프리텔레콤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케이블텔레콤
기타 전기통신업 (1)	팩넷케이블코리아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17)	나이스정보통신
	마이비
	스마트로
	써머스플랫폼
	에스케이플래닛
	에코원
	엘림넷
	이카드밴
	인포바인
	제이티넷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케이엘넷
	코밴
	팩넷네트워크코리아
	한국정보통신
	한네트

Source: Kisvalue

# Business Contacts

## 전자정보통신반도체산업 전문팀

**양승열**

부대표

T: 02-2112-0330

E: seungyeoulyang@kr.kpmg.com

**염승훈**

전무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전철희**

전무

T: 02-2112-0355

E: cjun@kr.kpmg.com

**박성배**

전무

T: 02-2112-0304

E: sungbaepark@kr.kpmg.com

**한상현**

전무

T: 02-2112-0387

E: sanghyunhan@kr.kpmg.com

**오현창**

전무

T: 02-2112-7478

E: heonchangoh@kr.kpmg.com

**정헌**

상무

T: 02-2112-0334

E: heonjung@kr.kpmg.com

**노원**

상무

T: 02-2112-0313

E: wroh@kr.kpmg.com

**민성진**

상무

T: 02-2112-0852

E: smin@kr.kpmg.com

**신문철**

상무

T: 02-2112-0356

E: moonchulshin@kr.kpmg.com

**강인혜**

상무

T: 02-2112-0363

E: ikang@kr.kpmg.com

**최이현**

상무

T: 02-2112-0505

E: yeehyunchoi@kr.kpmg.com

**김익찬**

상무

T: 02-2112-0468

E: ikchankim@kr.kpmg.com

**안창범**

상무

T: 02-2112-0312

E: cahn@kr.kpmg.com

**허재훈**

상무

T: 02-2112-7707

E: jaehoonheo@kr.kpmg.com

**김정기**

상무

T: 02-2112-0346

E: jungkikim@kr.kpmg.com

[kr.kpmg.com](http://kr.kpmg.com)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